문소관광 주식회사
(주)편월바이오 안동, 의성점
태평농장
代表 權 世 穆

경북 의성군·읍 문소3길 101
의성사무실(054-832-1138~9)
경북안동시 태화 7길 9
안동사무실(054-859-7893, 855-5566)
휴대폰 : 010-3505-1138

安東權氏宗報

문사
Tel.02.2268.2455
대표 권 은 혁
Mobile 010-3796-2455 서울시 중구 마장로 72 신성상가 1003호

[월간] 2016年 1月 1日(금요일) ☎ 대표 (02)2695-2483~4 www.andongkwon.org 종보보급소 (02)2695-2480, 070-8866-2480 權氏 紀元1087年 第 487 號

丙申元旦 國內外 一百萬 權門家族의 健康과 幸福이 가득하시기를 祈願하옵니다

安東權氏大宗院 任職員 一同

新年辭

새해 아침에

權正達
(安東權氏大宗院總裁)

존경하는 국·내외 백만 족친 여러분!!

2016년 병신년(丙申年) 희망찬 새 아침, 국내외 일백만 권문 가족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새해를 밝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조상님의 거룩한 '얼'과 '음덕'을 가슴에 안고 권문중흥에 앞장섭시다.

지난해 대종원 주요행사로서 신년회, 능동장학회 이사회, 행주대첩기념제, 정기총회, 이치대첩제, 운영위원회, 종무위원회, 파종회장협의회, 지역회장협의회 등을 개최하면서 권문 남녀노소가 일심동체가 되어 화합의 장을 열었습니다.

대종원 파종회장협의회와 지역회장협의회는 정기총회와 각종 회의를 열면서 대종원과 파족간 지역회장간에 유대강화와 상부상조, 공존공생의 길을 창출하면서 안동권씨 위상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청주청장년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27회 안동권씨전국청장년 체육대회는 '일등 경제 으뜸 청주' 청주시정 목표를 알리면서 '권문의 날'로 100만 족친의 화합과 소통을 위하는 날로 구심체 역할을 했으며 족친간의 교류가 증진되고 종친회 및 청장년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하시는 일 하고싶은일 모두 뜻대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는 제28회 전국청장년체전행사가 4월 하순, 대구청장년회가 주관하여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많이 참석하여 권문 축제의 한마당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조·낭중공 춘추향사는 임시총회를 열어 재론키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니 전국 족친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라오며 권문중흥, 문사혁신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종원 문사진작을 위하여 각 문중의 의견을 수렴해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 청장년층에서 많이 활용하도록 개발하고 노년층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매체 검색창에 '안동권씨대종원'을 치면 대종원 홈페이지가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종보'는 조상님의 유훈과 사적 등이 기록되고 족친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대화와 토론의 만남을 위한 장으로 일가들에게 알려 드리는 소식지로 편집하여 구독확대를 하고 있으니 권문의 소식을 접하도록 자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독자 원고투고로써 모든 족친들에게 귀감이 되는 내용, 안동권씨를 빛낸 인물, 대종원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많이 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재)능동장학회에 동참하여 인재육성사업에 동참합시다.

잘 가꾼 인재는 가문의 등불이며 국가의 동량입니다. 장학금 기부에 동참하고 인재 발굴 장학사업에 많은 족친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선행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따르며 꽃향기는 천리를 가지만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는 말과 같이 그 고결한 뜻과 정신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도(道)로써 벗을 사귀고 벗으로 인(仁)을 쌓는다"는 성현의 말씀대로 선조들과 후손들의 만남과 인연을 통해서 우리 족친들이 굳게 뭉쳐 계승 발전시켜 나아갑시다.

올해는 권기(權紀) 1087년, 국내외 족친 여러분들 매사에 감사하면서 집안에 웃음이 가득하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요.

역사 교과서 논쟁, 두 개의 오류

"국정은 나쁘고 검인정은 좋다는 잘못된 교과서 등식의 오류 '풀과 가위'의 역사에서 벗어나 역사학계, 바른 역사 바로 써야"

권영빈
(한국고전번역원 이사장)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역사 교과서 논쟁은 소모적이다. 논쟁의 주제를 잘못 설정해 놓고 부질없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역사 교과서를 바르게 쓰자는 주제와 국정이냐 검인정이냐는 논쟁은 별개 트랙이다. 국정은 나쁜 역사 교과서고 검인정이면 좋은 교과서라는 잘못된 등식에서 논쟁의 오류가 생겨났다.

원래 검인정 교과서는 국정 보다 진화된 형태다. 다양한 관점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청소년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선진형이다. 국정은 대체로 독재 또는 후진국에서 쓰는 정권의 일방적 주입식 교과서 편찬 방식이다. 이게 일반론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과서 현실에선 이런 일반론을 적용할 수 없다. 보수 정권이 역사를 왜곡 미화했듯, 진보 또한 민중 또는 진보 성향 관점에서 역사를 왜곡 미화하길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전 보수 정권 시절 국정교과서를 보자, 5.16 정변을 부정 부패 정권을 무너뜨린 영웅적 거사이고 혁명으로 기술했다. 정권 연장의 수단에 불과했던 10월 유신이 민족중흥이라는 말로 미화 포장 되었다. 북의 김일성은 가짜다. 항일 독립운동가 김일성은 일찍이 죽었고 젊은 김일성이 이를 도용했다고 당시의 국정 사회도덕 교과서는 썼다. 북엔 마치 뿔 달린 도깨비들이 사는 세상처럼 그려졌다. 이러니 북한에 다녀온 작가 황석영이 "북에도 사람이 살고 있구나"라는 탄식을 했을 정도다.

그 뒤를 이은 진보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교과서를 검인정으로 바꾸고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근현대사 교과서를 별도 제작해 역사논쟁을 불러 왔다. 단정(單政)을 이끈 이승만은 분단의 책임자니 건국 대통령이 될 수 없고 1948년 8월15일은 대한민국 건국일이 아닌 정부수립일이 될 뿐이다. 유상분배의 남쪽 토지개혁 보다 무상분배의 북의 개혁을 높게 평가한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의 산업화 정책 평가엔 인색하면서도 반민주 반인권의 독재 탄압에는 강한 방점을 둔다. 이러니 3대 세습의 북한 정권엔 비교적 너그럽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끈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선 친일 독재자로 폄하한다는 비판이 제기 되는 것이다.

'국정'은 악이고 '검인정'은 선이다 라는 일반론은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다. 국정교과서가 보수 정권 미화에 기여했듯, 검인정 또한 386세대들 간에 팽배했던 민중사관의 영향 아래 역사를 새롭게 왜곡했다. 박근혜 정부가 이번 사안을 국정이냐 검인정이냐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지 않고 역사교과서를 바르게 쓰자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했다면 사정이 이토록 꼬이질 않았을 것이다. 역사 교과서가 정치문제로 비화하고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른 데는 역사학자들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크다. 폭압 정권에 굴복해서 역사를 미화했든, 항거를 위해 왜곡했든 그 책임은 역사가에게 있다. 그렇다면 역사학자들이 차제에 발 벗고 나서 이를 시정하자고 앞장설줄 알았다.

이번만큼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교과서 만들자고 두 손 들고 나설 줄 알았다.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역사학회 이름으로, 대학 이름으로 국정은 안 된다고 거부하며 국정교과서 집필을 한사코 반대한다는 시위를 하고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오류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역사가다(Every man is his own historian)라고 미국의 역사학자 칼 베커는 말했다. 누구나 과거를 지니고 산다. 때론 일기도 쓰고 과거를 회상하며 반성의 자료로 삼는다. 과거의 잘 잘못을 귀감 삼아 미래를 대처한다. 이점에서 역사가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공동체의 역사나 다중의 역사를 쓰는 경우 아마추어로선 어렵다. 여기서 스페셜리스트인 역사가가 등장한다. 엄정중립과 균형을 요구한다. 프로는 아마추어와 달라야 한다.

일기 쓰듯 역사 교과서를 쓸 수는 없다. 사실에 입각해 자료를 수집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수가 인정할 다중 공통의 역사, 한 나라의 역사를 써야 한다. 특히 청소년을 위한 교과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역사적 평가가 어려운 '가까운 과거'는 유보하고 연대기적 기술을 해야 한다. 어디 까지를 역사로 보고 어디까지를 현재로 보느냐는 시대구분에도 합의해야 한다.

'풀과 가위'의 역사라는 말이 있다. 사실에 없는 일을 풀칠로 덧씌우고 보기 싫은 과거는 가위로 잘라내는 역사의 반역행위를 역사학자 콜링우드는 그렇게 표현했다. 풀과 가위의 역사로 얼룩진 우리의 역사 교과서를 언제까지 후대에 물려 줄 것인가.

진정한 역사가라면 풀과 가위의 역사를 벗겨 내는 작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역사 전공자들이 모두 손 빼고 나 몰라라 할 때 우리의 역사 교과서는 또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그때 가서 나는 그곳에 없었다고 알리바이를 주장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참여를 통해 바른 역사를 바로 써야 한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역사가들의 시대적 과제다.

대종원운영위원회 개최

△대종원 사무실에서 12월 7일 운영위원회 개최.

지난 12월 7일 11시 안동권씨대종원(總裁 權正達)은 서울대종원 사무실에서 시조와 낭중공의 춘추향사(春秋享祀) 일자(日字) 변경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권정달 총재의 개회선언에 이어 안동권씨대종원 정관 제22조에 의거 운영위원 19명중 1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권정달 총재는 인사말에서 먼저 원근을 가리지 않고 회의에 참석해 주었음에 감사하다고 말하였다. 오늘 토의할 안건은 지난 5월 20일 대종회 총회에서 시조와 낭중공의 춘추향사 일자를 <춘향은 3월 중정일, 추향은 9월 하정일>로 변경을 하였는데 이를 반대하는 족친이 있어 이에 대한 좋은 의견을 기탄없이 교환하여 권문이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 보자고 하였다.

권계동 상임부총재는 준비한 참고자료에 의거 춘추향사 일자를 변경하자는 제안(提案)에서부터 2015년 5월 20일 대종원정기총회에서 시조와 낭중공의 춘추향사 일자가 변경되기까지의 연유(緣由)와 경위(經緯)를 설명하였다. 이어서 우리 시조를 배향하는 경주 운곡서원(雲谷書院)에서부터 안동삼태사묘(安東三太師廟)를 비롯한 여러 서원(書院)을 일일이 예를 들어가며 상정일(上丁日)과 중정일(中丁日)에 향사(享祀)를 봉행하고 있는 사례(事例)를 설명하였다. 지난날 우리 아시조(亞始祖) 낭중공(郞中公)의 향사도 하정일(下丁日)에 봉행하였으며, 명문세족(名門世族)의 성현(聖賢)을 배향하는 서원(書院)의 향사도 하정일(下丁日)에 봉행하고 있는 서원(書院)이 많이 있음에 일일이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였다.

향사일 변경 사례도 안동태사묘(安東三太師廟)를 비롯하여 성균관(成均館)의 석전대제(釋奠大祭)도 처음은 상정일(上丁日)에 봉행하다가 1937년부터는 양력 4월 15일과 10월 15일로 변경하였고, 1949년에 공자 탄일(誕日)인 음력 8월 27일에 기념석전(記念釋奠)을 봉행하다가 1953년에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로 다시 환원하여 현재까지 봉행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명이 끝나고 시조와 낭중공의 춘추향사(春秋享祀) 일자(日字) 변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교환을 하며 오랜 시간 협의를 하였으며, 이 문제는 임시총회 때 재론을 하여 의견을 모아 결정하기로 하였다. 임시총회 때 이 내용을 알고 참석하여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이 문제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 서한(書翰)을 임원들에게 우송하기로 하고 회의를 모두 마쳤다.

〈권경일 기자〉

■ 신년휘호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進德修業 덕에 나아가 업을 닦는다.

丙申元旦

2016年 1月 1日

權五烈
64세·안동
35世 僕射公派

- 이연학회 동양학 연구원장
- 성균관유도회 경북본부 교육원장
- 경북 유도문화교육관 동양학 강좌

安東權氏大宗院 新年會 및 臨時總會 案內

安東權氏大宗院은 丙申新年交禮會 및 臨時總會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아 래 -

▲日時 : 2016년 1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
▲場所 : 국방컨벤션(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번지)
▲참석대상 : 초청내빈, 고문, 총재단, 파종회장, 종무위원, 대의원, 지역종친회장, 전국 청장년 회장

1부 : 신년교례회
2부 : 임시총회, 안건:시조 추향제 일자변경(안), 기타토의

▲연 락 처 : 02)748-0707(국방컨벤션 안내)
대종원 : (02)2695-2483~4
사무총장 : 010-3170-0962(권오운)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13번 출구 5분 소요

※ 개별통지없이 광고로 대체하오니 양해바랍니다.

2016년 1월 1일

安東權氏大宗院 總裁 權正達

통일나눔펀드 가입 회원모집

조선일보에 매일 게재되는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통일나눔펀드에 안동권씨대종원에서 동참하고자 합니다. 안동권문 족친께서는 통일을 기원하며 미래세대에 대한 한민족의 번영을 기약한다는 취지로 통일나눔펀드에 가입하시기 권장합니다.

- 아 래 -

1. **가입방법 :** 매달 1 만원 이상 1구좌 24만원 이상 납입
납입하실 분은 지역, 소속, 직책, 성명, 금액, 전화번호를 명기하여 대종원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고 기탁금은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탁처 :** 통일나눔재단 ※ 기탁하면 조선일보에 일괄 광고로 나옵니다.
단체명 : 안동권씨대종원 단체 아래 기탁자 성명 기록(금액은 기록치 않음)
3. **입금계좌 번호 및 예금주 :** 국민은행 : 033237-04-006909 안동권씨대종원
농 협 : 317-0009-6063-91 안동권씨대종원